광(光)산업 공동마케팅 추진

국내 광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체제가 구축된다.

한국광산업진흥회(회장 김종수 LG이노텍 대표)는 4월3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갖고 국내기업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2002년부터 광주와 경기 · 인천 · 대전 · 대구지역 등 4개 지역에 지역별 공동마케팅과 정보공유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.

이를 위해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업과 부품소재 개발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.

광통신분야, 광정밀분야, 광정보분야 등 분야별 그룹화사업도 함께 추진해 국내 광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도 유도한다.

광산업진흥회는 6월과 7월에 열리는 독일 뮌헨의 "Fiber Com"과 일본 Chiba의 "Interopto" 등 국제 광 관련 전시회에 자체 홍보관을 개설하는 등 해외 시장개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.

2002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내 국제행사 때에도 광 관련 학술 세미나를 열고 홍보관을 운영키로 했다.

진흥회는 2004년까지 광주시 북구 월출동 한국광기술원에 광산업 상설전시관을 개관하고 8월에는 진흥회에 광정보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2/04/08>